

제 목	출 처	보도일자
경산과학고, 고등과학원 황준묵 교수 초청 특강	아시아뉴스통신	2014.11.29



지난 27일 경산과학고등학교에서 황준묵 교수(고등과학원 교수)가 '수학자의 길'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경산과학고등학교)

경북 경산과학고등학교(교장 이희욱)는 지난 27일 황준묵 교수(고등과학원 교수)를 초청, '수학자의 길'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이번 특강은 수학에 대한 흥미와 이해를 높이고, 융합적 사고와 문제해결 능력을 가진 인재 양성(π 형 인재 양성)교육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황 교수는 수학 공부와 운동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점수를 잘 받기 위한 수학 공부가 아닌 학문으로 수학에 접근해 공부하는 방법, 다양한 학문 가운데서도 자신에게 맞는 분야를 선택하는 것의 중요성, 학교에서 실패를 통해 성장하고 안목을 넓혀나가는 것이 이후의 삶에서 큰 자산이 된다는 것 등에 대해 강연했다.

또 수학자로서의 자신의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천재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장시간의 노력의 산물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황 교수는 자신이 만나본 천재수학자 그레고리 페렐만(수학계 100년의 난제인 우주의 형태와 구조에 관한 푸앵카레 추측을 푼)도 타고난 소질에 장시간의 집중된 훈련으로 다져진 '달인'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과학고 학생들이 타고난 자질을 바탕으로 자신에게 맞는 전공을 선택해 각 분야의 '달인'이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강연이 끝난 뒤 학생들과의 질의 응답 시간도 가졌다.

한편 올해 서울에서 개최한 세계수학자대회에서 한국인 최초로 기조연설을 했던 황 교수는 기하학의 난제로 꼽히던 '라자스펠트의 예상'을 증명하고, 50여 년간 미해결문제였던 '균질공간의 변형불가성'을 증명했다.

그의 업적이 수학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 학자에게도 소개할 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받아 한국인으로서 최초로 지난 2006년 마드리드 세계수학자대회에 분과 강연자로 초청받았다.

'다 읽고 싶고 되고 싶은 과학기술인상(2006)', '대한민국 최고 과학기술인상(2006)', '국가과학자 선정(2010)', '호암상(과학상)(2009)', '과학기술훈장 혁신장(2014)' 등 다수의 상을 수상했다.

박종률 기자 / jrpark69@naver.com